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불법에서는 인생에 닥친 역경에 도전해 가는 현실 속에서 자신을 성장·단련시킬 수 있고 행복을 구축할 수 있다고 한다.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인생의 모든 면을 더 좋은 방향으로 영구히 바꿀 수 있는데 그 과정을 ‘숙명 전환’이라고 하며 생명을 근원에서 변혁해 흔들리지 않는 행복을 확립하는 것이다. 불법의 생사(生死)의 관점에서 볼 때, 행복은 수많은 생을 거쳐 미래까지 영원히 존속한다. 여기에서는 숙명전환의 원리와 숙명을 사명으로 바꾸어 가는 진정한 불법의 실천을 알아본다.

숙명이란 무엇인가?

우리 자신의 문제나 괴로움은 현세에 우리가 만든 행동이나 판단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중에는 현세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것도 있을지 모른다. 그럴 때 “난 잘못된 것도 없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라고 생각할지 모른다.

불법에서는 현세에 경험하는 많은 일들이나 상황들은 과거세에 행했던 행동의 결과라는 숙업의 원리를 가르친다. ‘숙업’은 산스크리트어로 ‘행위’라는 뜻이다. 우리들의 사고, 언어 또는 처신하는 행위는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아서 우리 생명에 심어지며 이러한 인은 현세와 미래세에 ‘여시과’로 잠재되어 있다가 어떠한 상황과 때에 따라 감지할 수 있는 결과 또는 업의 응보인 ‘여시보’로 드러나게 된다. 숙업이란 전세(前世)에 쌓아둔 행위로 인해 현세에 결과로 나타날 때까지 우리 안에 잠재해 있는 것이다. 업은 선업 또는 악업일 수 있으나 ‘숙업’이라고 하면 과거세의 나쁜 행동으로 인한 나쁜 결과로 보는 경우가 많다.

불법에서는 생명이 현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세, 현세, 미래세에 걸친 삼세의 생명관을 설하며 우리 자신의 매순간의 행동들이 삼세에 걸쳐 인과로 나타난다고 한다. 과거세나 현세에 남을 험담하고 상처를 주고 도난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등의 나쁜 인은 현세 또는 미래세에 고통과 문제를 낳는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불법과 대부분의 동양 철학에서 가르치는 인과의 법칙이며 대성인은 ‘통상의 인과의 법’이라고 하며 이 원리를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나 단지 알고 있다는 자체로는 생명을 바꿀 수 없다고 하셨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나쁜 인을 좋은 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생사를 반복하면서 악업을 하나하나씩 청산하는 것이 외에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더이상 나쁜 인을 쌓는 것도 삼가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세에 숙업에서 나오는 고난을 직접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바꾸는 길은 없다는 것이며 대다수의 불경(이전경)에서는 숙업을 바꾸기 위해 억겁에 걸친 끊임없는 금욕적인 수행을 요구한다. 이와 같은 숙업의 관점은 궁극적으로 희망을 찾을 수 없는 숙명론이다.

다행히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은 통상적인 숙업이나 인과에 중점을 두지 않는다. 대성인은 ‘사도어사’에서 “니치렌은 이 인과는 아니며”(어서 960 쪽)라고 쓰시면서 자신이 대난을 받은 것은 불법에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통상의 인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현세와 과거에 있어서 법화경을 비방했기 때문이라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불경이 아닌 심오한 법과 원리를 가진 경으로써 즉 만인성불, 인간존중, 자타의 행복을 설한 정법인 것이다. 방법이란 생명 안에 갖추고 있는 이러한 중요한 부분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며 자타 모두가 묘법의 당체인 것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묘법에 대한 역의 관계는 나쁜 인을 깊이 쌓게 되어 여러 형태의 악업으로 나타난다.

방법으로부터 숙업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만인의 행복을 위해 정법을 지키고 흥통해 가는 가장 근본적인 좋은 인을 쌓는 것이다. 이것은 묘법인 정법을 바르게 믿고 지키며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도 정법을 알려주는 올바른 실천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생명의 경향성을 즉시 바꾸게 되며 괴로움에 허덕이는 자신으로부터 생명력과 환희가 넘치는 자신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니치렌 대성인의 불법에 있어서의 숙명전환의 과정이며 이 실천의 핵심이 남묘호렌계교의 제목인 것이다.

대성인은 “중죄는 상로(霜露)와 같으며 혜일(慧日)은 능히 소멸하니라.”(법화경 724 쪽) 고 하는 보현경의 문(文)을 인용해서 과거의 악업을 자신의 생명에 쌓인 서리와 이슬에 비유하면서 어본존을 수지하고 자행화타를 위한 제목에 매진해간다면 자신의 흥중에 태양과 같은 불계의 생명이 나타나 어떠한 죄업도 서리나 이슬처럼 사라진다고 하셨다.

전중경수

신심과 광선유포에 매진할 때 그것을 방해하려는 장애(障摩)와 고난에 직면한다.

니치렌 대성인께서는 그러한 반대에 부딪히는 것이 오히려 공덕이라고 가르치셨다. 어려움을 겪고 이겨내면서 자연스럽게 전중경수의 과정을 수행하게 되는 것이다. 일본어로 텐주쿄주(轉重輕受)라는 말은 ‘전중경수’라고 해석하는데 말그 대로 풀면 ‘무거운 것을 바꾸어서 가볍게 받는다’라고 한다. 과거세의 무거운 죄업에 의해 현세만이 아닌 미래세에 걸쳐 큰 괴로움에 빠져들지 않으면 안되는 것을 현세에 정법을 믿고 광선유포의 홍통을 위해 도전해 가면 중죄의 과보를 일시에 가볍게 받아 죄업을 모두 소멸시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유로 니치렌 대성인은 전중경수의 공덕을 통해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전중경수법문, 1000 쪽)라고 말씀하셨다. 고난은 숙업을 없애는 생명을 단련시키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 대성인께서는 또한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으로 되고 현성은 매리함으로써 시험되느니라. 나의 이번의 감죄는 세간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오로지 선업의 중죄를 금생에 없애고 후생의 삼악을 면하기 위함이니라.”(사도어서, 958 쪽)고 설하셨다.

원겸어업 (願兼於業)

고난에 직면하여도 신심을 관철해서 숙명을 전환하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의미가 크게 변한다. 법화경의 ‘법사품’에는 ‘원겸어업 (원해서 업을 겸한다)’의 법리가 설해져 있다. 이것은 위대한 복운을 쌓은 보살이 악세에서 중생에게 법화경의 원리를 설하고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기 위해 스스로 청정한 업보를 버리고 일부러 악세에 태어날 것을 원하는 것이다.

이 경우, 과거세의 숙업으로 난을 겪는 사람처럼 보살도 괴로움을 겪게 된다. 우리 자신이 타인을 위한 자비에서 난을 만나 극복하겠다는 선택을 했다면 고난을 받아들이는 새로운 관점이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바로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보살의 서원을 원수하기 위한 것이다.

인생의 고난을 헤쳐나가면서 타인의 고통을 자신의 일처럼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다. 모든 문제를 신심으로 이겨내면서 승리하는 인생의 본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도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가치있는 경험인 것이다.

이케다 회장은 원겸어업의 원리를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이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나 숙명은 있다. 그러나 숙명을 정면에서 직시하고 그 본질적 의미를 찾는다면 어떠한 숙명도 자신의 인생을 더욱더 풍요롭고 깊게 해줄 것이다. 그리고 숙명에 도전하는 우리의 행동은 많은 사람에게 모범이 될 것이다.”

“즉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경우 악의 숙명을 선의 숙명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다. ‘숙명을 사명으로 전환’하는 사람은 누구라도 ‘원겸어업’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자신의 사명이라고 받아들여 전진해가는 사람이야말로 숙명전환의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다.”(2003년 8월 리빙부디즘, 50 쪽) ■